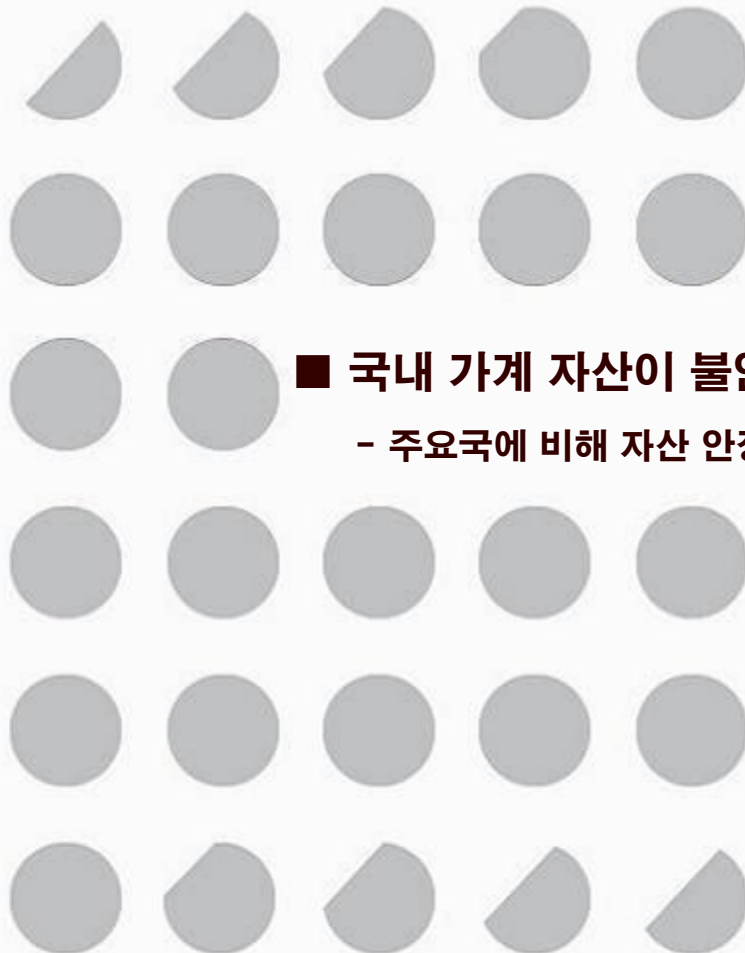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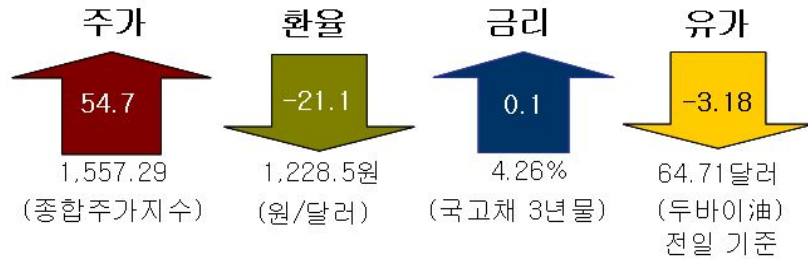
經濟週評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24~7.3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국내 가계 자산이 불안하다 - 주요국에 비해 자산 안정성 취약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 가계 자산이 불안하다

- 주요국에 비해 자산 안정성 취약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자산총액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1/2 ~1/3 수준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가격변화에 따른 시장리스크도 이들 국가에 비해 크다. 국내 가계자산의 시장리스크 노출 상황을 점검하면 첫째, 주택시장이 지역적으로 불안해지면서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가치의 변동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시장성금융상품이 증가하면서 대출과 예금에 대한 금리변동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가계의 주식보유 비중이 높아지고, 특히 직접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계보유 주식의 가치변동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넷째, 보험·연금 자산도 변액(變額)보험과 확정기여(DC)형 등 시장가격 변화에 민감한 변동성 자산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시장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원인은 첫째, 글로벌경제 및 금융시장 통합, 저금리 정책과 통화 급증에 따른 과잉유동성 등이 정책의 변화와 함께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00년 이후의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로 인하여 금융기관들이 변동금리부 대출과 변액보험 등을 통해 리스크부담을 개인에게 이전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셋째, 고령화 대비에 시급한 개인들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으로 수익성 금융상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가계자산은 약 87%가 시장가치 변화에 민감한 자산으로서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자산가치 급등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가계의 리스크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산의 가치변동은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자칫 가계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켜 소비약화, 신용불량 및 개인파산 증가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정부, 금융기관, 개인들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는 가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연령별 및 소득계층별 데이터를 통해 가계부문 리스크 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은 고령화 대비를 위한 리스크관리가 된 금융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여 시장리스크를 줄임으로써 고령화 충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스스로 금융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 국내 가계 자산이 불안하다 >

국내 가계자산 현황과 주요국 비교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가계자산: 부동산 80%, 금융자산 20% - 금융자산: 예금 46%, 보험및연금 25.2%, 주식 15% 등
주요국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가계자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작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GDP 대비 가계자산도 낮은 수준 - 구조적으로 시장가격 변동 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주식 직접투자 등의 비중 높음 · 예금, 보험및연금 등에서도 변동성 자산 비중 확대

국내 가계자산의 시장리스크 점검	
부동산 '집값리스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 급등락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잉유동성 → 수도권 일부 주택시장 과열 → 가치 상승 · 미분양아파트 → 지방 주택시장 침체 지속 → 가치 하락
예금 및 대출 '금리리스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급등락 → 예금수익과 대출이자 급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증가 · 은행 시장성예금 비중 증가
주식 '주가리스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 단기부동화 → 주가의 변동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의 주식투자 비중 증대 추세: 2008년 금융위기로 축소 · 주요국과 달리 주식직접투자 비중 증대
보험및연금 '시장성' 비중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상황에 따른 수익 변동성 보험 및 연금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 중 변액보험 비중 증대 ·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DC)형 비중 증대

원인과 시사점	
리스크노출 확대의 원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화, 저금리, 과잉유동성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축소 및 전가 경향 - 노후 대비를 위한 개인들의 자산증대 욕구 증가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가계자산의 변동성 증대는 가계 및 국가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 재무상태 악화로 신용불량 및 개인파산 증가 · 국가: 소비 약화와 고령화 사회 대비의 어려움 - 경제주체의 적절한 대응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가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태분석 후 대응책 마련 · 금융기관, 리스크관리된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교육 강화 · 가계, 자산의 자산 재구성과 금융시장 이해력 제고

1. 국내 가계자산의 구성과 주요국과의 비교

○ 국내 가계자산, 부동산 80%, 금융자산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 자산 중에서는 예금의 비중이 절대적임

- 2007년 3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5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 2억 8,112만원 중 부동산이 76.8%, 금융자산이 20.4%로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저축, 보험, 전·월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저축총액)은 5,745만원, 부동산(택, 토지, 건물 등) 2억 1,604만원, 기타자산(자동차, 회원권 등) 764만원
 -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월세보증금을 부동산으로 간주할 경우 76.8%가 아니라 81% 수준으로 상승
- 한국은행 자금순환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국내 개인의 금융자산 비중은 예금이 약 46.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보험및연금 25.2%, 주식 15.0%, 수익증권(채권 등)의 순임
 - 최근 5년간 변화를 보면 2007년까지 증시호황에 따라 예금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2008년 급등
 - 생명보험/연금 비중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고, 꾸준한 증가
 - 채권은 등락을 거듭하고, 주식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빠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금융위기 이후 급락

< 개인부문 금융자산 구성비 추이 >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예금	49.4	46.9	46.1	41.8	46.0
보험및연금	22.8	21.9	22.7	22.9	25.2
수익증권 (채권등)	5.2	5.8	7.3	9.8	7.1
주식	15.2	19.2	17.7	20.2	15.0
기타	7.4	6.3	6.3	5.3	6.7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 국내 가계자산,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노출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큰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자산총액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작고, 1인당 GDP 대비해서도 그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임¹⁾
- 우리나라의 2006년 1인당 자산총액은 96,998달러이고,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1/2~1/3 수준
- 1인당 GDP 대비 1인당 자산총액도 이들 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음

< 주요국의 가계자산 비교 >

(단위 : 달러)

	미국 (2007)	영국 (2006)	일본 (2006)	한국 (2006) ²⁾
1인당 자산총액 (A)	225,302	251,314	173,391	96,998
1인당 GDP (B)	45,489	35,669	32,040	24,801
A / B (배수)	4.95	7.04	5.41	3.91

자료 : FRB, 英 통계청, 일 내각부, 통계청, OECD

- 국내 가계자산은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가격 변화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동 위험이 큼
-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미국 33.2%, 영국 54.0%, 일본 39.0% 등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76.8%임

< 주요국의 실물 및 금융자산 비중 >

	미국 (2007)	영국 (2006)	일본 (2006)	한국 (2006기준)
실물자산	33.2%	54.0%	39.0%	76.8%
금융자산	66.8%	46.0%	61.0%	23.2%

자료 : FRB, 英 통계청, 일 내각부, 통계청, 자산운용협회 인용 참조.

1) 각국의 가계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총액을 1인당 달러화로 환산하였으며, 실물자산 데이터의 한계로 각국 모두 기준연도를 동일하게 할 수 없음.
 2)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의 실물자산 총액이 없는 관계로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 조사'에 있는 가구당 평균 자산액에 2005년 조사된 가구 수로 곱하여 총액을 구하였으며, 이를 다시 당시의 인구수로 나누어 구함.

- 한편 금융자산 중에서도 주식의 경우 직접투자 비중이 줄고 있는 비교국과는 달리 직접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함
 -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주식 직접투자가 줄고, 간접투자가 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이후의 적립식펀드 열풍에 힘입어 간접 투자가 오히려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식 직접투자도 급증
 - 단,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주식투자가 크게 줄음 (2009년 1분기 말 : 직접투자 16.7%, 간접투자 7.8%)

<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보유 비중의 투자형태별 비교 >

(%)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직접투자	간접투자	직접투자	간접투자	직접투자	간접투자	직접투자	간접투자
2003	16.9	11.4	10.9	4.4	8.4	2.4	7.5	4.8
2005	14.9	12.1	11.7	4.0	11.6	3.7	7.0	6.3
2007	12.0	14.2	7.4	5.5	11.3	5.0	21.2	9.8

자료 : FRB, 英 통계청, 일본은행, 한국은행, 자산운용협회 자료 재인용.

주 : 영국, 일본의 2007년 경우 3/4분기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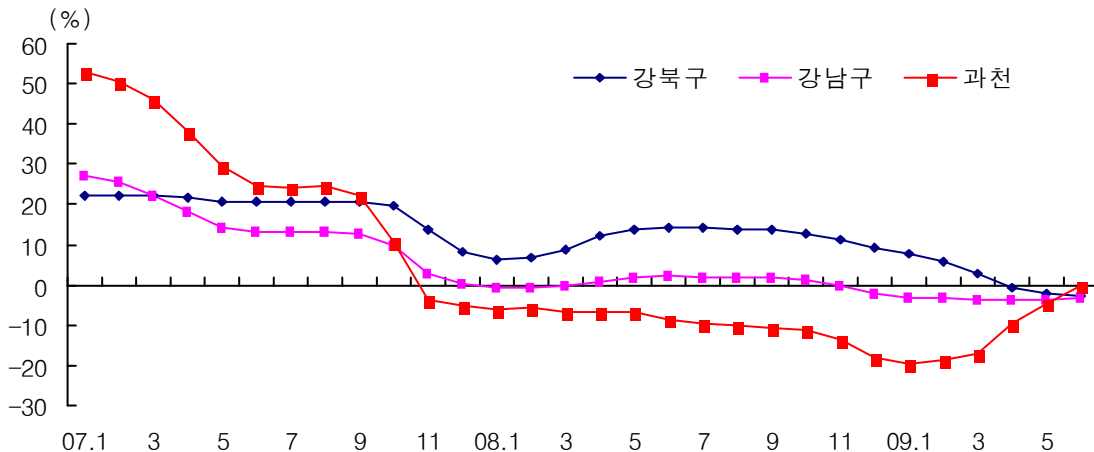
-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된 자산으로 여겨졌던 은행상품(예금, 대출 등)과 '보험및연금'도 금융환경의 변화로 점점 시장위험 노출이 확대되는 추세
 - 예금에서도 시장성금융상품이 증가하고, 대출 금리조건에 있어서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장가격 변동위험이 증가
 - 보험에서도 변액(變額)보험, 퇴직연금에서도 확정기여(DC)형 등 시장가격의 변화에 그 가치가 변동하는 비중이 증가
- 국내 가계자산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따른 가치변동 리스크(시장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부동산가격, 금리, 환율, 주가 등 주요 가격변수들의 급등락은 외환위기 이후 시장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국내 가계자산의 가치 변동 위험을 증가

2. 국내 가계자산의 시장리스크 점검

○ ('집값리스크' 증대) 최근 주택가격이 지역적으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변동 위험이 증가

- 최근 국내 아파트가격지수 증감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07년 말까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이후 둔화되다가 최근 빠른 회복세를 시현
 - 강남지역 등 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경기회복 기대 및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거래심리가 소폭 회복되면서 금년 초부터 상승세로 반전
 - 과천지역의 경우 2007년 초부터 2008년 말까지 22.5%p 하락하였다가 2009년 들어서 6월말까지 12.9%p 상승

< 서울 지역 아파트가격지수 추이 >



자료 : 국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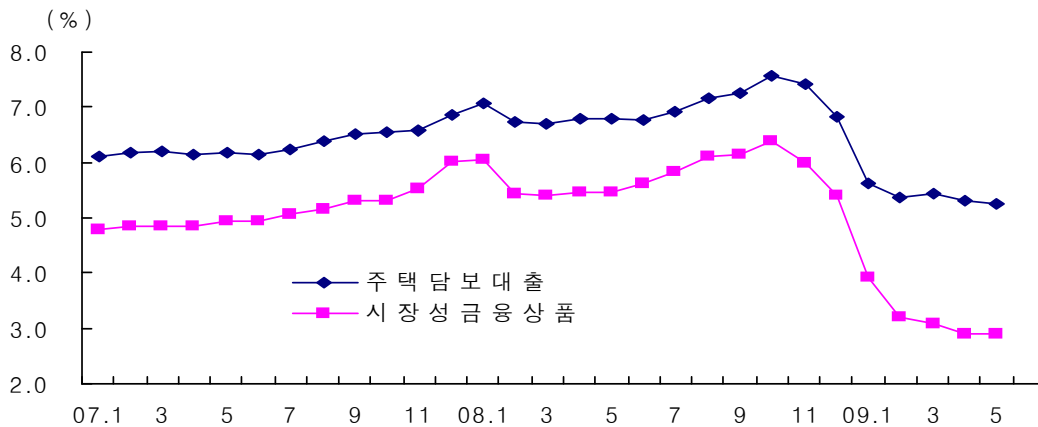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변화될 위험에 직면
 -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공급과잉 등 지속적인 하락압력과 정책당국의 강력한 부양책 등 상승압력이 '엎치락뒤치락' 세력 겨누기를 하고 있는 상황
 - 수도권과 달리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분양주택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등 공급우위 현상이 나타남
 - 부동산이 과거처럼 '불패 자산'이라는 인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경제적 기조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예금·대출의 '금리리스크' 증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증가된 시장성 예금과 대출 등에 대한 금리리스크가 크게 증가

- 최근 들어 정부의 통화정책, CD금리(유통수익률) 변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고객금리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짐
- 지난해 말 기준금리 급락으로 CD금리가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대부분 CD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대출 금리와 시장성금융상품금리 역시 동반 급락
-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시장성금융상품금리가 지난해 말 각기 7%대와 5%대로 상승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5%대와 2%대로 급락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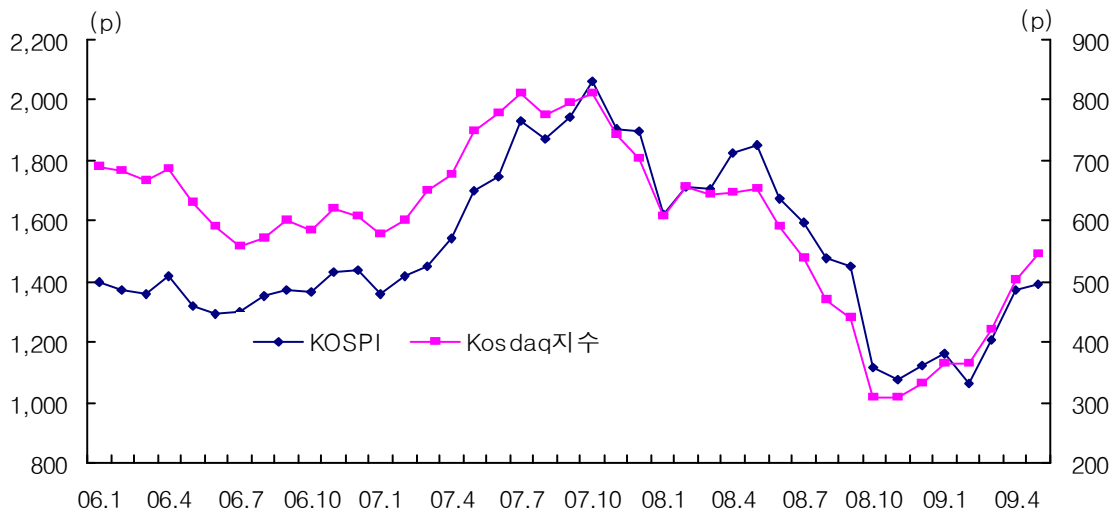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금리 조건에 있어서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예금에서도 시장성금융상품이 증가하면서 대출과 예금에 대한 금리변동 위험이 증가
- 부동산가격 급등과 더불어 2004년 1분기 155조원 수준인 국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009년 1분기 247조원 수준으로 증가(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대출의 비중이 2003년 말 78.6%에서 2007년 말 91.7%로 증가 (고정금리대출 8.3% 중에서도 혼합형이 6.1%여서 사실상 어느 정도 변동금리 속성을 지니고 있음)
- 은행의 총예금에서 시장성예금 비중이 2006년 1월 25.1%에서 2009년 5월 35.1%로 10%p 증가

○ (주식의 '주가리스크' 증대) 가계의 주식보유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주가의 변동성 증가가 가계보유 주식가치 변화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유동성 단기부동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 국내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가운데 금년 3월 이후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상승
-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주식시장을 머니게임화 시키면서 주가 변동성을 높이고 있음

< 최근의 국내 주가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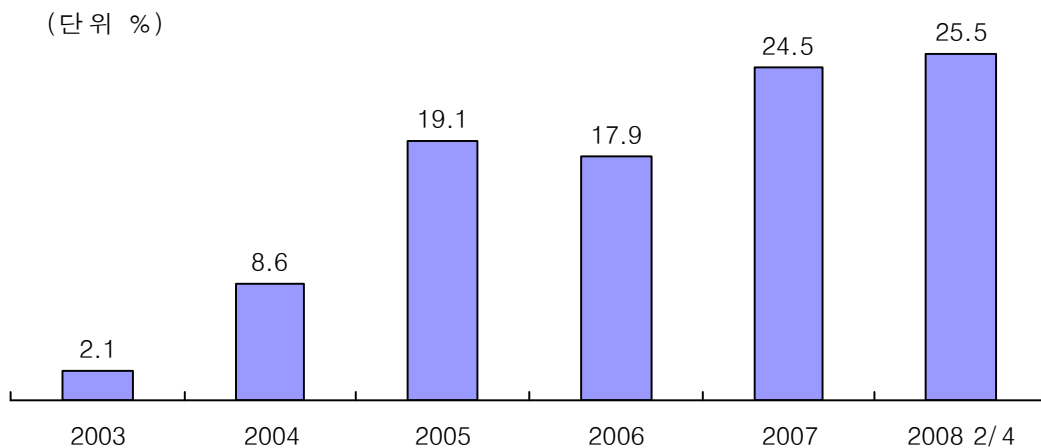
자료 : 증권거래소.

- 가계의 직간접 주식투자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주가의 급등락 심화는 가계 주식자산 가치의 시장리스크를 증대
- 가계 주식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은 간접투자 보다 직접투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직접: 2003 7.5% → 2007 21.2%, 간접: 2003 4.8% → 2007 9.8%)
- 한편 2006년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펀드 투자가 증가하면서 해외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변동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음

○ (보험·연금의 '시장성' 비중 증대) 보험·연금 자산도 시장가격 변화에 민감한 변동성 자산의 비중이 늘어감으로써 시장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음

- 최근 보험에서도 변액(變額)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퇴직연금에서도 확정기여(DC)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³⁾
- 미국의 경우 변액보험 계약고가 전체 계약고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변액보험의 비중이 2003년 2.1%에서 2008년 2/4분기 25.5%로 급증
- 2008년 말 현재 투자실적에 따라 변화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비중이 30.9%이며, 현재도 중소기업장의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국내 생명보험 중 변액보험 비중 추이 >



자료 : 보험개발원.

-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퇴직연금 등의 자산 가치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점점 변화가 커지고 있음
- 급속한 고령화 추세, 고용구조상 정년 축소,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를 위한 자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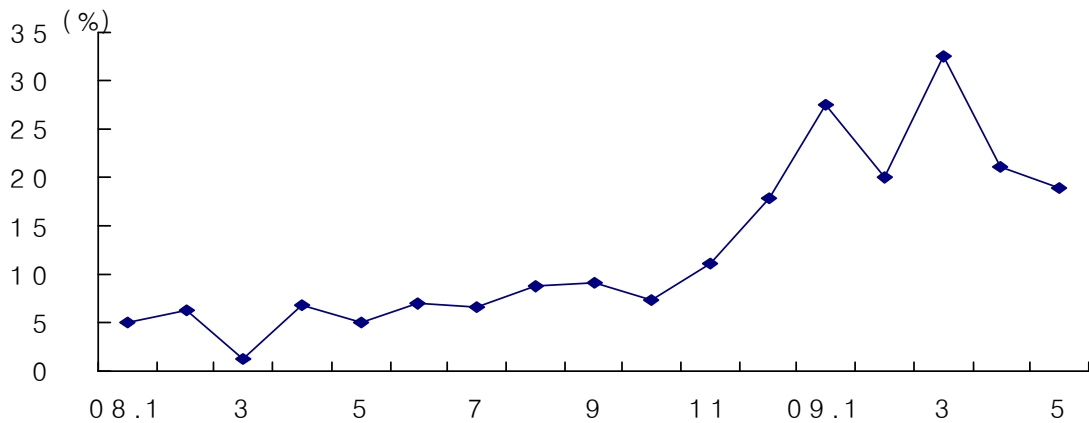
3) 변액보험은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 가입할 때 이미 정해진 정액보험과는 달리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보험으로 저금리 하에서 재테크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음.

3. 리스크노출 확대의 원인과 시사점

(1) 원인

- 경제와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과잉유동성 등이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한은의 본원통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선순환 되지 못한 채 금융권 내에서 단기부동화 되면서 자산 가격을 급등락시킴
 -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5~10%대의 본원통화(MB) 증가율이 금년 상반기에는 20~30%로 급증
 - 단기 부동자금은 부동산, 주식 등 초과수익이 존재하는 곳으로 유입 및 이 탈되어 해당 자산의 가격을 쉽게 급등락 시키고 있음

< 최근의 본원통화(MB)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한편 자산 가격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음
 - 예컨대 최근 과잉유동성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출구전략(exit strategy; 위기이후 유동성 회수 전략)'이 한창 논의
 -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은 경제상황이 정상궤도로 근접할 경우를 대비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축소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 2000년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로 인하여 금융기관은 자신의 리스크 부담을 개인에게 이전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BIS비율 등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로 금융기관의 리스크부담을 축소하거나 전가하려는 성향을 띠
 -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은 개인의 리스크를 집합하여 상쇄함으로써 시스템전체 리스크를 축소하려는(즉, 개인은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만 부담하고 여타 리스크는 금융기관이 부담) 기능을 지님
 - 1980년대 이후부터 주요국 금융기관들은 건전성 문제 등으로 가능한 리스크 부담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기업여신을 줄이고, 위험성이 높은 유가증권 보유 비율을 축소시키고 있음
- 국내 금융기관도 위험자산 보유 축소와 더불어 위험부담을 개인 등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확산
 - 일반은행 자산 중 유가증권 보유 비중 : 1999년 26.66% → 2008년 16.46%
 - 대출 금리조건에 있어서 변동금리 추세, 예금상품에 있어서 시장성 상품의 증가, 보험상품에서의 변액보험 증가 등이 대표적인 위험전가 사례

○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개인들의 자산 증대 요구 급증

-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을 높이려는 개인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변화
 - 일정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위험 인수(risk-taking) 자금이 꾸준히 증가
 - 은행 예금으로의 자금유입이 주춤하는 대신, 주식 등 자본시장 금융상품에 대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개인들의 직접적 자산관리 욕구 증대(DC형 퇴직연금 등이 대표적)
-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각 금융기관이 저금리 시대에 확정금리만으로 경쟁이 어려워지자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
 -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각 금융기관들은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복합 금융상품을 속출
 - 이러한 상품은 점점 수익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일치

(2) 시사점

○ 향후 금융시장이 크게 변동할 경우 국내 가계자산의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 국내 가계자산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리스크노출 비중이 훨씬 큼
 - 부동산과 주식투자 비중이 높고(특히 직접투자 비중이 높음), 예금과 대출, 보험과연금 등의 변동성 비중(30%로 가정)이 증가하면서 현재 가계 자산의 약 87%가 시장가치 변화에 민감한 자산임⁴⁾
 - 이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약 50~60% 수준인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리스크관리 능력이 부족한 가계의 자산가치는 상승보다 하락의 가능성이 큼
 - 뿐만 아니라 가계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실물자산 보유가 과잉된 상태에서 가계는 자칫 유동성위기에 빠질 수 있음
- (가계 순자산가치 하락 과정 예) 만일 부동산가격과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현재보다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국내 도시가구의 경우 부채증가가 없더라도 자산손실 등으로 가계의 순자산가치는 크게 하락 가능
 - 2006년 5월말 이후 자산가치가 오른 점과 부채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 아파트 평균 가구의 재무 상태를 다음과 같이 부동산 4억원, 금융자산 1억원, 금융부채 8천만 원 등으로 가정⁵⁾
 - 만일 최악의 시나리오(금리 3% 상승, 부동산 및 주가 각기 20% 하락)를 가정할 경우 국내 가계의 순자산은 3억 3,280만원으로 축소되며,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도 연 240만원 증가⁶⁾

4) 자료의 특성상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나 부동산과 주식 등은 100%, 기타자산은 30%의 변동성 비중을 고려하여 추정.

5) 통계청 '2006년 가계자산 조사' 참조.

6) 여기서도 예금과 연금과 보험의 변동성 부분이 30%라고 가정.

< 금융환경 악화에 따른 가계 재무상태 변화 >

현재		금융환경 악화	
(자산)	(부채)	(자산)	(부채)
부동산 (4억 원)	금융부채 (8천만 원)	부동산 (3.2억 원)	금융부채 (8천만 원)
금융자산(1억 원) 예금 : 4,500만 원 보험연금 : 2,500만 원 주식 : 1,500만 원 기타 : 1,500만 원	순자산 (4억2천만 원)	금융자산 (9,280만원) 예금 : 4,230만원 보험연금 : 2,350만원 주식 : 1,200만원 기타 : 1,500만원	순자산 (3억 3,280만원)

- 가계의 리스크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산가치 변동은 자칫 가계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가계부분은 점진적으로 경제시스템내의 ‘충격의 최종 흡수자(shock absorber of last resort)’가 되어가고 있음
 - 만일 가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을 경우 충격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치는 급락하고, 이자부담이 급증하여 매우 곤란한 재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 현재와 같은 리스크노출이 심한 구조로는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는 매우 미흡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개인부문의 복잡한 리스크관리에 실패할 경우 최종 보험자로서의 정부지원을 요구로 나타날 수 있음
 - 가계의 소비력 약화로 건강한 국가 경제 기초 마련이 어려울 가능성
 - 전통적으로 리스크관리 능력이 부족한 개인부문의 리스크부담 확대는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를 형성하면서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자 등의 구제가 큰 정책 이슈로 대두할 가능성

- 금융시장의 변동 폭이 심화되고, 가계의 리스크노출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 금융기관, 개인들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함
 - (정부) 가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하여 대응책을 준비
 - 멀지 않아 다가올 심각한 가계 자산 및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통계청 등에서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급
 - 연령별 및 소득계층별 데이터를 통해 가계부문의 리스크 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
 - 한편 개인부문의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 및 배포 체계 구축 필요
 - (금융기관) 고령화 대비를 위한 리스크관리가 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
 -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노후대비 리스크관리에 적합한 금융상품 개발 필요
 - 금융시장 혼란에 대비한 사전 위험관리와 개인들의 신용위험 상승에 대비하여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 정책 차원에서 개인부문 재무관리에 필요한 금융교육 강화, 양질의 조언
 - (개인) 과다 리스크노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고령화 충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리스크관리를 위해 스스로 금융에 대한 이해력 제고
 -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주식, 보험, 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안정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
 - 자본시장 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 직접투자보다는 리스크관리 장치가 보완된 간접투자가 바람직
 - 금융 책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력을 통한 금융지식 향상 필요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3669-4009)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미국	2.8	2.0	1.1	0.9	2.8	-0.5	-6.3	-5.7	-	-2.6
EU	2.9	2.7	0.8	0.6	-0.2	-0.2	-1.6	-2.5	-	-4.8
일본	2.0	2.3	-0.7	1.4	-3.5	-2.9	-13.5	-14.2	-	-6.0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7.9	7.5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2.5	-3.0

주 1) : 2008년, 2009년 1/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7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7월 24일	7월 31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2.21	2.66	3.54	3.66	3.61	-0.05%p
	엔/달러	112.58	90.22	97.34	96.14	94.74	95.49	0.75¥
	달러/유로	1.4722	1.4125	1.3190	1.4083	1.4211	1.4074	-0.0137\$
	다우존스지수	13,265	8,776	7,609	8,447	9,093	9,154	61p
	닛케이지수	15,380	8,860	8,110	9,958	9,945	10,165	22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3.41	3.94	4.16	4.16	4.17	0.01%p
	원/달러	936.1	1,259.5	1,383.5	1,273.9	1,249.6	1,228.5	-21.1원
	코스피지수	1,897.1	1,124.5	1,206.3	1,390.1	1,502.6	1,557.3	54.7p

주 : 7월 31일 해외 지표는 전일(7월 30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7월 24일	7월 31일	
국제 유가	WTI	95.97	44.61	49.65	69.08	66.50	67.37	0.87\$
	Dubai	89.30	36.45	46.80	71.85	67.89	64.71	-3.18\$
CRB선물지수		358.71	229.54	220.40	249.96	251.91	253.14	1.2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